양영복 무안군의회 부의장, 對언론 막말·삿대질 '빈축'

공무원 대동 통보 없이 공장 방문·진입

업체, 건조물침입 혐의 6명 고소장 접수

경위 질문에 "건방진 놈·사이비들" 폭언

"절차 무시 활동 자질 의심" 비난 쇄도

〈속보〉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민간 사업장을 무단 방문(본보 11월9일자 9면)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피소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 양영복 부의장이 언론 취재를 거부하며 폭언을 퍼부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무안군의회 무소속 양영복 부의장(무안·일로읍, 몽탄·현경·해제면)과 박창석 의원(무안·일로읍, 몽탄·현경·해제면)·더불어민주당 정은경 의원(삼향읍, 청계·망운·운남면) 등 6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들은 이달 1일 군 환경과장 등 공무원 3명, 마을 관계자와 함께 청계면 소재 한 민간 사업장을 방문했다.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을 확인하겠다며 사전 통보도 없이 정문 안으로 진입한 이들은 사업주 측에 시설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현장에 동행한 민간인이 사업장 내부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업주 측이 무단 출입에 거세게 항의하며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의원과 일행들은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군 환경과 공무원들은 당일 지렁이 사육동 일부를 점검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일에도 나머지 시설 전체를 추가 점검했다.

업체 측은 "매년 마을 행사 등에 수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내왔는데 이제는 군의원들까지 집단 방문했다"며 "의원들에게도 발전기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사건 경위와 공적 의정 활동의 목적을 확인하려 한 본지 기자를 대하는 양 부의장의 몰상식한 태도였다.

본보 기자가 양 부의장을 찾아가 군의원 공동방문 경위와 공무원 동행 목적 등을 정당하게 취재하려 했지만 양 부의장은 삿대질과 반말을 섞어가며 "건방진 놈, 기사 똑바로 써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어 양 부의장은 "나는 이번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취재 기자를 향해 "다 사이비들"이라고 폄훼 발언과 폭언을 쏟아낸 뒤 나갈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개인에게 민간 사업장을 강제 조사하거나 출입할 포괄적 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원까지 동행해 현장을 찾은 경위에 대해 공인으로서 성실히 해명하기는 커녕,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향해 삿대질과 막말로 응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의원의 민간 사업장 무단 방문 논란과 함께 취재 기자에게 삿대질과 반말을 서슴지 않은 양 부의장의 태도에 대해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





전남광주 진도군무형유산전수관·국립남도국악원에서 최근 열린 '2026 진도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키스 하워드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 명예교수가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진도에 머물며 채록한 현장 기록물 324점(사진 왼쪽)을 진도군에 기증했다. 〈진도군 제공〉

40년전 지역의 소리, 고향 진도로 돌아왔다

런던대 하워드 교수 사료 324점 기증

1982-1984년 민속·생활문화 기록물

전승 교육·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 기대

40년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의 마을과 들녘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와 생생한 민속문화 기록이 다시 고향 진도의 품으로 돌아왔다.

10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진도군무형유산전수관과 국립남도국악원에서 '2026 진도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학술대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키스 하워드(Keith Howard)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명예교수의 아카이브 기증이었다.

하워드 교수는 진도대교 건설이 한창이던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진도에 머물며 채록한 민요, 음악, 의례, 생활문화 관련 현장 기록물 324점을 진도군에 기증했다.

육지와 연결되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진도 사람들의 삶과 고유한 전통예술을 생생하게 담아낸 귀중한 사료로 기증식에는 이재각 진도군수가 참석해 하워드 교수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감사를 표했다.

기증된 녹음 테이프와 저서, 한글 현장 조사 노트 등은 진도문화원 학고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향후 민속문화 연구와 전승 교육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진도대교 이전과 이후, 키스 하워드 아카이브로 읽는 진도 민속문화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총 7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일본, 영국, 필리핀 등 국내외 학자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대교 개통이 섬 공동체에 미친 영향, 진도북놀이의 세계화 가능성, 1980년대 씻김굿 음악 분석 등이 다각도로 조명됐다. 특히 롤리 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고(故) 한남례 명인의 민요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분석해 주목받았다.

이밖에 진도국악대 설계 방안과 필리핀 생활전통학교 사례를 통한 미래 세대 전승 체계, '진도대교 이후 100년'을 대비하는 문화 정책 토론이 활발히 이어졌다. /진도=박세권 기자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생애말기 존엄돌봄사업'에 참가한 작천면 용정경로당 어르신들이 생애 마지막 순간 자신이 원하는 돌봄 방식을 적은 '내 마음 노트'를 작성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전국 최초 '생애말기 존엄돌봄' 주목

80세 이상 돌봄 방식 스스로 결정

병원 중심 탈피 주민이 이웃 살펴

올해 6개 마을 운영 후 확대 방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은 10일 "최근 작천면 용정경로당에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돌봄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생애말기 존엄돌봄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내 마음 노트'를 작성하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평소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바라는 돌봄의 형태를 구체적인 글로 표현했다. 이는 어르신을 단순한 돌봄 수혜자에서 벗어나 남은 삶과 돌봄 방식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로 이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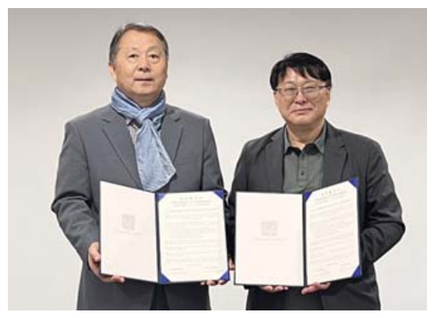
사업은 강진형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호스피스 병원 중심의 체계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마을돌봄활동가(주민)가 이웃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 기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지난해 교육을 통해 수녀 등 종교인을 포함한 22명의 활동가를 양성했다. 올해 6개 시범 마을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참여 마을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수진 군민행복과장은 "생애말기 존엄돌봄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과 마을에서 마지막까지 뜻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어르신의 돌봄 의향을 지역사회가 함께 존중하는 강진형 통합돌봄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진=박길종 기자

나주천연염색재단-전남광주 ESG협회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문화 활성화 '맞손'

ESG 경영 확산 업무협약 체결

천연염색 소재 공동 연구 등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10일 "최근 전남광주 ESG 협회와 ESG 경영 확산과 친환경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은 나주의 대표 자원인 천연염색의 생태적 가치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친환경 천연염색 소재·제품 공동 연구·마케팅 ▲폐자원 업사이클링 등 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취약계층 대상 천연염색 기술 교육·일자리 연계 ▲지역 공예인 창작 활동·판로 확대 지원 등에 협력한다.

또한 재단은 협약의 취지를 내부 경영에도 반영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며 실천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

임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천연염색은 자연의 지혜가 담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중한 문화자원"이라며 "협약을 발판 삼아 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목포시, '유소년 하키 페스티벌' 개최

13-15일 목포국제축구센터서 200명 참가

국가대표 강습·운동회·관광체험 등 다채



지난해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제1회 목포시장기 남녀 하키 스토브리그' 경기 모습. 〈목포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10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전국 유소년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유소년 하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종목의 목포 분산 개최를 통해 형성된 대한하키협회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유치됐다.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페스티벌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유소년 하키 경기와 함께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서는 하키 강습, 참가자 전원이 함께 즐기는 명랑 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선상 크루즈와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 등 목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표 해양관광 프로그램이 연계돼 참가자와 가족들이 스포츠와 지역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목포시는 내년에도 유소년 하키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우수팀 초청 하키 스토브리그를 개최하는 등 하키 저변 확대와 전국 단위 스포츠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어린 선수들이 목포에서 하키의 매력을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쌓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훌륭한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MOU

운임비 50%·관광지별 할인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10일 "최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본사에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에는 완도군을 비롯해 영암군, 강원 평창군, 전북 고창·순창군, 경남 하동군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완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철도 운임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기차 승차권을 현장에서 제시하면 완도군 대표 관광명소에서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광지별 할인 혜택은 ▲해양생태전시관·장보고기념관·완도타워 각 50% ▲해양치유센터 30% ▲청해포구 촬영장 20% ▲짚라인 10% 등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철도 연계 할인은 먼 거리에서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거리감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레일과 협력해 지역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